백두산2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주체91(2002)년 5월 9일

군에 의거해서 변혁운동을 전진시키는 정치방식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북이 가장 어려울 때 인민군대에서 발휘된 혁명정신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으로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같이 전진시켜 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사회자 : 오늘 이 시간에는 이북의 선군정치에 관해서, 구체적으로는 선군정치가 군에 의거해서 변혁운동을 전진시키는 정치방식이라는데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 어떻습니까.

김현규 : 군에 의거해서 변혁운동을 전진시켜 나가는 건 **김정일**장군님께서 펴나가시는 선군정치방식의 근본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에 의거해서 변혁운동을 전진시켜 나간다는 건 인민군대의 선봉적이며 강위력한 군력에 의거해서 변혁운동의 모든 분야를 힘있게 전진시켜 나간다는 걸 의미하죠. 이건 한마디로 인민군대를 변혁운동의 가장 믿음직한 핵심역량, 전위부대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해서 민중중심의 이북식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강성대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사회자 : 군대를 본보기로해서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군대의 선구자적 위치를 높여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온 사회를 일신시켜 나가는게 다름아닌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방식의 본질적 의미, 다시말해서 독창성이라 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다. 군을 변혁운동의 주력군, 기둥으로 내세우고 군에 의거해서 변혁운동을 전진시키는 정치방식은 역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정치방식이라 생각하는데요.

김현규 : 아시다시피 선행한 노동자계급의 이론에서는 군에 의거해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을 다같이 추진시키는 정치방식은 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군대는 반혁명을 제압하기 위한 역할과 조국보위와 사회주의제도보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사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군의 사명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의 조국수호에만 규정시켜 놓은 선행 사회주의정치방식과는 달리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을 다같이 통일적으로 담당해서 수행해 나가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북이 가장 어려울 때 인민군대에서 발휘된 혁명정신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으로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같이 전진시켜 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선군정치는 **김정일**장군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 수 있는 위대한 **김정일**식정치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자 : 옳습니다. 그럼 얘기를 진전시켜서 선군정치가 군에 의거해서 변혁운동을 전진시킨다는데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됐으면 합니다.

김현규 : 군에 의거해서 변혁운동을 전진시킨다고 할 때 그건 군대의 주도적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이 순간도 멈춰섬이 없이 전진하도록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날 사회주의위업은 민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미답의 길인만큼 온갖 시련과 곤난을 극복하는 속에서 새것을 창조해야 할뿐 아니라 제국주의세력의 도전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만큼 그 어느 사회혁명단계보다 난문제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런만큼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 잘 준비되어 있는 군대를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근본위치에 세워야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난 7년간 이북의 사회주의건설전반을 봐도 잘알 수 있죠.

사회자 : 그래요. 우리 민중들도 잘 알다시피 이북은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경제봉쇄와 연이어 지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식량난과 에너지부족으로 경제부문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수호자이며 민중의 행복의 창조자인 인민군대가 마땅히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시며 전기, 식량, 석탄, 철도, 운수를 비롯해서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선에 인민군대를 내세워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셨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옳습니다. 그래서 이북군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맡자≫는 슬로건을 높이 치켜들고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 가장 어려운 분야를 맡아 돌격로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강원도, 평안북도를 비롯해서 온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맛이 나게 대규모 규격포전으로 훌륭히 정리한 것을 비롯해서 구월산, 칠보산, 금강산 등 명승지들을 민중의 문화휴식처로 훌륭히 개변시켰고 군대가 직접 전야에 달려나가 농사일을 도와주는가 하면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대흥단골에 달려가 감자농사혁명의 선도자로 되었고 발전소, 탄광, 철도, 운수 등 나라의 경제명맥마다에 군대가 파견되어 강성대국건설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김정일**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선군정치야말로 완성된 사회주의정치방식, 만능의 보검임을 웅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 참으로 인류정치사의 상상봉에서 선군정치, 자주정치를 펴시고 인류자주위업을 주도해나가시는 위대한 정치가, 탁월한 영장을 모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더욱 높아만 가는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얘기를 아실 거예요. 포수모자에 대한 얘기말이죠. 몇해전에 일본의 어느 한 출판물에는 우리 나라 지도 주변에 여러마리의 맹수들이 으르렁대는 만화가 실렸던 적이 있었죠. 당시 북을 압살하려는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야수들의 공세가 극한에 이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였는데요. 바로 이런 때에 **김정일**장군님께서 야전복차림에 챙이 짧은 털모자를 쓰시고 최전선에 나오셨죠. 그때 서방보도계는 즉시 반응했어요. **김정일**장군님께서 쓰신 모자는 보통 모자가 아니다, 범을 위시한 맹수들에 겁을 주시는 포수모자라는 것, **김정일**장군님께서 포수모자를 쓰시고 최전선에 나오신 것은 북을 먹겠다고 으르렁거리는 제국주의맹수들을 잡으시려고 나선 것이라는 것, 등등이였습니다. 그때 미군측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죠. 북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당장 날아와 터진다고 아우성쳤고 당국에서는 연례적으로 발표하던 대북정책이라는 것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했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동원됐던 미국의 공격용핵잠수함 ≪***≫호는 제시간을 규정하지 못해 훈련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었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현지시찰의 길에서 평범한 모자 하나로써도 상대방의 기를 꺾어놓고 적진을 와해시켜 승리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9일~30일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 군에 의거해서 변혁운동을 전진시키는 정치방식
- 이북은 왜 미국에 무서운 존재로 되는가
-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기치
- 반제민족해방위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북은 왜 미국에 무서운 존재로 되는가

오늘날 부시미행정부는 힘의 정책에 기반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필사발광하고 있다.

미국은 9.11사건을 구실로 감행한 아프간전쟁의 불길을 세계도처에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행정부는 이북을 ≪악의 축≫의 하나로 몰아붙이고 대북핵선제공격계획까지 내돌리는 한편 사상유례없는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는 등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 가공할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제아무리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발광하지만 그에 놀라거나 두려워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같은 작태야말로 이북앞에 겁먹은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으며 임종전야의 가련한 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외가 공인하듯이 미국은 지구촌에서 유독 이북을 가장 무서운 존재로 여기면서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다.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한 산술적 대비로 보면 이북을 미국이 무서워할 이유란 전혀 있을 상 싶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실적으로 이북을 가장 무서워하며 이북앞에서는 오금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때문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단 한가지, 즉 이북에 만고의 절세의 위인, 희세의 천출위인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밖에는 그 어떤 다른 이유란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그에 관해 고찰, 해부해보기로 한다.

1

영도자의 위대성은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에 정비례한다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나라와 민족은 위대한 힘을 지니게 되고 그렇지 못한 나라나 민족은 망국의 비운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은 역사에 의해 확인된 불변의 진리로써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북에 동서고금의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한 가장 위대한 영도자 절세의 위인들이 계셔 미국이 가장 무서운 존재로 되고 있음은 내외 주지의 사실이다.

이북이 미국에 가장 무서운 존재로 되는 것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세기 초엽이었다. 일제치하의 암흑세월, 식민지동방의 조선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올랐다. 1912년 4월 15일 유서깊은 성도 평양의 만경대에서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시었다. 이것은 20세기가 낳은 인간세계의 태양의 출현이었다.

같은 날 미국으로 향하던 세계 최초의 대형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서방의 침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동방조선에서 주체태양의 출현과 서방의 침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대로 역사의 향방이었고 새로운 시대, 자주시대의 여명이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세계에 알려졌을 때 인류는 얼마나 놀랐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은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가.

사실 20세기가 낳은 인류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10대 소년기에 조국광복과 민중의 자유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나서신 첫 시점에서 벌써 시대와 역사의 향방을 투시하시고 전인미답의 주체위업을 진두에서 개척하시었다. 천출위인이신 주석께서는 1926년 10월 주체형의 첫 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약칭 ㅌ.ㄷ)을 결성하시어 주체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실 때 지구상에서 일제제국주의타도선언을 내리시었다.

당시로 말하면 역사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이 활개치면서 허장성세하였다. 제국주의가 멸망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때 10대에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시대와 역사의 향방을 투시하시고 도고한 민족주의자들이나 행세식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 주체위업실현의 길을 개척하신 **김일성**주석이시었다. 온갖 사조와 주의주장이 범람하는 혼탁된 속에서 일제제국주의타도선언으로 멸적의 장검을 뽑아 드신 그분께서는 제국주의종매장전을 진두에서 이끄셨다.

그분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횃불, ≪ㅌ.ㄷ≫의 붉은기를 치켜드시고 공고한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시면서 백두연봉과 만주광야를 주름잡아 달리시며 강도일제대군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리시었다.

세계 제열강을 자처하던 일제를 상대로 장장 20성상, 그중 15성상이나 무장항일전을 유례없는 전설적 영웅서사시로 수놓아오신 만고의 전설적 명장 **김일성**주석께서는 마침내 1945년 8월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었다.

일제의 패망과 역사적인 조국광복의 출현, 이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타도제국주의전선에서의 위대한 첫 승리였고 불멸의 공적이었다. 그것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미제에게 있어서는 일제의 패망은 내일에 대한 무서운 사형선고였다. 더욱이 강도일제를 패망시키신 만고의 영장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에 개선하시어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선명히 하시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립의 길로 매진하시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미제에 대한 달콤한 환상이 유포되고 있을 때 미제가 해방자, 원조자가 아니라 침략자, 약탈자임을 선언하시고 반미투쟁의 기치아래 진보적 인류를 이끌어나가시자 미제의 불안과 공포심은 증폭되지 않을 수 없었다.

광복직후 미제의 호전장군 맥아더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일성**장군이 평양에 입성하였소.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그가 한반도를 다 차지할 것이오. 그러나 일본제국을 녹여낸 그가 제주도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다고 봐서는 안되오. 많은 약소국가들이 그를 구세주처럼 바라보고 있소. 아메리카대통령이던 푸고가 벌써 오래전에 이에 대해서 말한 바 있소.≫

이것은 미국의 우려와 두려움을 대변한 당연한 고백이었다.

사실 **김일성**주석의 대일승전과 역사적인 조국개선을 두고 미국은 두려움을 금할 수 없었다. 강도일제를 패망시키신 그 길로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에 나서신 **김일성**주석. 그분께서 이끄시는 이북을 그냥 두고서는 세계제패야망실현은 고사하고 아메리카합중국의 존재도 유지할 수 없음을 절감한 미제였다.

하기에 미국은 광복후 서둘러 38도선 이남을 강점하고 군정통치에 이은 이승만괴뢰통치에 의한 신식민지정치를 실시하면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북침전쟁을 일으켰다. 일제의 기반에서 벗어난지 겨우 5년, 공화국이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이북을 단숨에 압살하려고 미국은 자기 육해공군의 기본역량과 막대한 현대적 장비들을 동원하였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미국은 15개 추종국가 군대를 이 전쟁에 끌어들이고 인류전쟁사상 가장 야수적이고 잔인한 방법과 수단을 적용했다.

그런데 6.25전쟁의 결말은 어떠했던가. 미국은 작고 청소한 이북앞에 연전연패하였고 마침내 개전 3년만인 53년 7월 27일 휴전항복서에 도장을 찍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참패했다. 세계 면전에서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조각났고 영원한 번영을 자랑하던 미국은 급속히 파멸의 내리막길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6.25전쟁에서 이북의 승리를 두고 미국의 호전장군 클라크는 회고글에서 ≪북조선군이 성공을 거둔 것은 **김일성**장군의 유능한 지휘때문이었다≫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전쟁실천에서 찾은 패전이유였다.

참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주석께서 계시어 이북은 미국을 타승한 지구촌에서 유일한 영웅의 나라로 되었던 것이다. 한 세대에 미, 일 두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김일성**주석께서 이끄시는 이북은 반제반미투쟁의 기수로 되어 진보적 인류를 이끄시어 미제에게 더욱 더 무서운 존재로 부각되었다.

침략과 전쟁은 미제의 변할 수 없는 생리이고 세계제패야망은 버릴 수 없는 본성적 욕구이다. 바로 그런 미국이기에 6.25전쟁의 대참패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존재인 이북을 침탈하려고 필사발악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국은 이북앞에 수치스러운 참패만을 거듭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푸에블로≫호사건은 그 한 사례이다.

1968년 1월 미국에서 몇척밖에 안되는 최신형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이북 영해에 투입시켜 정탐행위를 하다가 조선인민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그때 미국은 항공모함전단을 위시한 대무력을 한반도에 급파하고 보복과 전면전쟁을 운운하며 미국의 벗들까지 내세워 압력을 가하는 등 새 전쟁도발에 미쳐 날뛰었다. 하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내리신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폭탄선언 한마디에 오만한 미국의 허세는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도 평양의 대동강기슭에는 이북이 나포한 ≪푸에블로≫호가 전시되어 당시 조미대결에서 이북의 쾌승을 증언하고 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배를 빼앗기고도 어쩌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선례를 남겼다.

미국은 이후에도 ≪EC-121≫기사건과 ≪8.18판문점사건≫, ≪핵사찰소동≫ 등 무모한 전쟁소동을 일으켰지만 이북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이북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지금도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면서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매장전을 영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미국이 어찌 영생하시는 주석께서 계시는 이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2

이북이 미국에게 있어서 무서운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더욱이 이북에 **김일성**주석과 똑같으신 절세의 위인이시고 만고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영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20세기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의 주체위업은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신 **김정일**영수에 의해 견결히 옹호고수되고 빛나게 승계,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김정일**영수께서 향도하시는 이북을 더욱 무서운 상대로 여긴다.

돌이켜보면 **김정일**영수께서는 조국광복의 여명이 밝아오던 1942년 2월 16일 조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셨다.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그분께서는 한없이 웅장하고 숭고한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 담력을 체현하신 백두산의 아들이시고 천출명장이시다. 그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승계해 나가실 사명을 지니신 또한분의 위인, 주체의 태양이시다.

일찍이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영수께서는 세계 최

강을 자처하는 미제를 격멸하는 6.25전쟁의 나날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서 무비의 영웅승전사를 향도하시는 주석의 기상과 담력과 주체의 영군술을 그대로 체현하신 강철의 명장이시다.

김정일영수께서는 일찌부터 **김일성**주석을 보좌하시어 수십년간 당, 국가, 군대의 전반을 영도하시면서 특출한 공적을 쌓으신 주체형의 충신이시고 노숙하고 세련된 정치원로이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민족과 인류의 절대적인 신뢰와 경모를 받으시는 영수이시기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무서운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는 희세의 영장으로 명성 떨치셨다.

지난 시기 미국을 위시한 서방언론들이 **김정일**영수를 ≪판단이 정확하고 결심이 단호하며 타격이 무자비하다≫고 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숨기지 못한 것은 그 한 사례라 하겠다.

위대한 **김정일**영수께서는 70년대에 벌써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제시하시고 이북의 당과 군민을 위대한 주석과 주체위업에 끝없이 충성 다하는 일심단결된 불패의 전투대오로 꾸리셨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뜻밖에 서거하셨을 때 **김정일**영수에 의해 육성된 이북 민중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를 보고 적들은 그 얼마나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렸던가.

당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이 이북 민중이 슬퍼하는 모습뿐 아니라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을 보고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북 민중앞에서는 그 어떤 대적도, 현대적인 무기도 맥을 추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한 미제국주의이다. 하기에 미제는 주석께서 서거하신 그때 핵대결소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발광했다. 그러나 미제는 이북앞에 무릎을 꿇고 북의 요구가 담겨진 북미기본합의문에 항복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었다. 더욱이 **김정일**영수께 미국대통령이 북미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담보서한까지 올리는 역사상 전례없는 현실이 펼쳐졌다.

지난 6.25전쟁때 미국이 휴전항복서에 싸인을 할 때 그것은 유엔군사령관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북미핵대결에서는 미국대통령이 싸인한 항복서를 받아냈으니 이 얼마나 통쾌한 결실인가.

총한방 쏘지 않고 세계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을 굴복시킨 위대한 쾌승을 두고 온 겨레는 지략과 담력의 장군이신 천출위인을 모신 자긍심과 영광을 간직하게 되었고 세계는 놀라움과 경이의 눈으로 이북을 주시하게 되었다.

사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주체위업을 승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를 미국을 몹시 무서워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일**영수께서 주석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받들어나가시면서 영생불멸의 업적을 수놓으시기 때문이다.

주석께서 서거하신 이후 이북에는 얼마나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조성됐던가. 구소련을 위시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시장의 폐쇄와 예년에 없는 혹심한 자연재해의 연속, 거기에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의 가중되는 군사작전, 그것은 다른 나라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그런 준엄한 시련이었다. 그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들이 바로 **김정일**영수께서 계시어 고난의 행군에 이은 강행군을 거듭하는 속에 하나하나 극복되었다. 단순히 극복된 것만이 아니라 이북 땅에 강성대국건설의 준마가 질풍같이 달리는 인류사적 기적, 만민경탄의 위대한 현실이 펼쳐졌다. 그것은 진정 세계 정치의 대원로이신 **김정일**영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 만민경모의 실력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었다. 이것은 그대로 미제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역사에 유례없는 독특한 선군정치, 선군영도로 수령영생위업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어 사상과 신념의 강군을 중핵으로 하는 필승불패의 방위력을 알차게 마련하시었으며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반한 최상최고의 간고한 사회의 일심단결을 전속으로 달리신 **김정일**영수이시다.

오늘날 이북의 군대는 **김정일**영수의 명령일하에 산악같이 일어나 물불을 가림없이 목숨바쳐 싸우는 일심일체화된 무적필승의 정예부대로 준비되어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께서는 만능의 보검인 선군정치의 막강한 위력과 선군영도업적으로 생사기로에 놓였던 사회주의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고수하셨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 국면, 막강한 토대를 마련하셨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새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하시어 민족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주셨다.

또한 이북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셨다.

지금 세계의 이목이 북으로 쏠리고 세계정치가 이북에 의해 주도되며 지구촌의 지각변동이 일어나 대국들과 열강들의 장정, 수뇌들과 저명인사들의 평양행이 지속되고 북과 적대관계에 있던 서방대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앞을 다투어 이북과 국교정상관계를 맺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영수의 선군정치와 영도실력이 낳은 당연한 귀결로써 미국에게는 무서운 철퇴로 되고 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주체위업을 승계, 완성해나가시는 21세기의 찬란한 태양 **김정일**영수께서 계시어 이북은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존재로 되고 있는 것이다. 부시를 비롯한 미국호전광들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는 이북의 당당한 자세, 그 무적필승의 기상앞에서 기가 질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 * *

위대한 **김정일**영수를 모셔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우쭐대는 미국이 이북앞에서는 감히 어쩌지 못하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있는 것을 보면서 온 겨레는 한없는 민족적 자긍심을 지니고 반미, 반전, 반핵투쟁을 과감히 벌이고 있다.

우리 민족, 민중은 미국을 불안과 공포에 질려 떨게 하시는 **김정일**영수의 세련되고 현명한 영도를 따라 불원간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민족자주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위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세세년년 만복을 누릴 것이다.

아울러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영수께서 계시고 그분의 향도가 있는한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은 종식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깃들 것이며 인류의 자주위업이 가속화되어 자주의 새세기가 펼쳐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9일~30일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기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대단결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주체87(1998)년 4월 18일에 발표하신 역사적인 저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날이 갈수록 우리 민중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의 이 저서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해서 민족의 대단결의 진로를 뚜렷이 밝힌 불멸의 총서입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저서에서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민족대단결업적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주석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팀없이 분기할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김정일**장군님께서 저서에서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이 어느때보다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 시기와 민족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통찰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해주신 건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전민족을 민족대단합의 길로 힘차게 이끌어준 불멸의 공적으로 됩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외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입니다. 남과 북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인 겁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건 막을 수 없는 민족사의 필연적 추이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밝혀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써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려는 온 겨레의 염원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기치입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우선 민족의 대단결이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해서 실현돼야한다는 겁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저서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이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라는 걸 새롭게 밝혀주셨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해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과제와 방도들을 뚜렷이 명시해주셨습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또한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해야한다는 겁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건 민족구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사상감정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민족대단결을 위한 튼튼한 사상정신적 기초로 된다는 걸 전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계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단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도 일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특히 과거에는 비록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남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 것이라고 언명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천명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또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려면 남과 북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남과 북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건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저서에서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로 이어지게 된 근원에 대해 분석하시고 남북간의 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면 대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때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서에서 이남당국이 남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꾼다면 그들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나갈 것임을 명백히 천명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밝히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또한 민족의 대단결

을 위해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해 투쟁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입니다. 외세의 부추김과 조종하에 역대 이남 통치배들은 분단의 장벽을 쌓고 남북간에 정치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켰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중을 탄압하고 애국적인 통일민주역량을 분열와해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 해왔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그와 결탁한 분열주의세력을 반대해 투쟁하지 않고서는 남과 북의 단합과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는 걸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저서에서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해 투쟁함으로써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을 제거하며 외세와 결탁한 반통일세력을 반대해 투쟁해야 한다는 걸 뚜렷이 명시해주셨습니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또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천명하신 것처럼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자유로이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연대연합을 강화해 나간다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해 뜻과 힘을 합칠 수 있으며 남북대화도 폭넓은 대화로, 전민족적인 대화로 되게 될겁니다.

참으로 **김정일**영도자님의 이 저서는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을 격동시키는 위대한 헌장이며 우리 민족을 민족단합과 통일애국에로 부르는 불멸의 대강이며 지도적 지침입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저서에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사상과 민족대단결의 5대방침은 그 정당성으로해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기치를 안겨주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그것을 구현해서 2000년 6월에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셨으며 온 민족에게 자주통일의 밝은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안겨 주셨습니다.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해서 남과 북 사이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들이 활기있게 진행되었으며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한꺼번에 북송되어 우리 민족을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일어난 이러한 전변은 다름아닌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민족대단결5대방침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은 앞으로 **김정일**장군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자자구구 새기고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대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할겁니다.

그럼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4일~5일

반제민족해방위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번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반제민족해방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기 위해 바치신 노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정원씨, 유진명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유진명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대성황리에 뜻깊게 보냈는데요. 태양절이 인류공동의 명절로 맞이한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 진보적 민중들은 그 언제보다도 경애하는 주석님을 절세의 위인,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흠모하면서 열렬히 숭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반제민족해방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바치신 노고와 심혈에 관해서 얘기 나눴으면 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어느 분 먼저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아시다시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겨레와 세계민중들이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시고 인류의 태양이신데요.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온 생애를 오로지 민중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이 과정에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식민지민족해방혁명, 인민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등 모든 단계의 변혁운동에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발표하셔서 변혁운동의 대백과전서, 세기를 이어 기리 전할 인류의 공동의 과제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주석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해나가시던 주체15(1926)년 10월부터 주체83(1994)년 7월 6일까지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 가운데서 주체87(1998)년 9월까지 출판된 저작은 무려 300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진명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전에 발표하신 수많은 저작들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교활한 양면술책, 그리고 반제투쟁의 전략전술적 방침 등이 뚜렷이 밝혀져 있는데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찍이 매 단계마다 반제투쟁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심으로써 피압박민중들과 혁명적 민중들에게 반제자주위업의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시고 세계적 판도에서 반제투쟁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한 피압박민중들의 투쟁이 날로 확대강화되게 됐는데요. 이러한 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1970년대말, 1980년대에 3대륙에서 근 30개 나라들이 민족적 독립을 이룩했던 겁니다. 이건 바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반제자주사상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자 :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1968년 10월 8일 3대륙인민단결기구의 주관 이론잡지 ≪프리콘티넨탈≫에 저작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발표하셨는데요. 이 저작 역시 반제민족해방위업을 새로운 앙양에로 고무추동하는 불후의 고전적 저작이잖아요.
유진명 : 옳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이 잡지에 불후의 고전적 저작을 발표하시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전해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다만 1966년 1월에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가 창설됐고 그 다음해에는 이 기구의 주관 이론잡지 ≪프리콘티넨탈≫이 창건됐는데요. 2개월에 1, 2차씩 스페인어, 프랑스, 영어 등으로 발간하게 된 잡지사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제기됐다고 그래요.
당시 국제정세는 말이죠. 복잡다단했는데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쫓겨난 제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식민지생명선을 되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했던 겁니다. 한편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새로 독립하는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노골적으로 감행했었는데요. 그들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해 나섰는데 이로 말미암아 세계 도처에서 평화가 유린되고 전쟁의 불길이 터졌어요. 결국 정세는 반제투쟁을 더욱 강화할 걸 요구했던 겁니다.
윤정원 : 이런 요구에 옳은 해답을 주는 것은 3대륙인민단결기구의 주관 이론잡지인 ≪프리콘티넨탈≫앞에 제기되는 과제였습니다. 잡지사일군들은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일찍이 반제투쟁에 관한 사상이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만이 이 문제에 옳은 해답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미 잡지사는 1967년 8월 12일 ≪프리콘티넨탈≫창간호에 실을 논설을 집필해 주실 것을 경애하는 주석님께 요청해서 그분의 저작을 게재한바 있었답니다. 때문에 잡지사일군들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영도하시며 바쁘신 나날들을 보내시는 주석님께 다시금 그와 같이는 요청하지 못했대요. 이로부터 잡지사일군들은 일련의 나라 지도자들에게 그와 관련한 그를 써보내줄걸 요청하는 서한들을 보냈지만 누구도 글을 써보내주지 않았답니다.
사회자 : 그러한 글을 쓸만한 위인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진명 : 안타까와 모대기고 있던 잡지사일군들은 이북의 해당부문 일군들을 만난 자리에 자기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놓고 **김일성**주석님께서 시간이 허락되실 때 조성된 현 국제정세에 대처해서 반제투쟁을 강화할데 관한 문제를 명철하게 밝히시는 저서를 또다시 집필해주실걸 요청했었다고 그럽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쾌히 수락하시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시간을 내시어 불후의 고전적 저작을 집필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돼서 1968년 10월 8일 저작은 세상에 공개됐고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겁니다.
사회자 : 정말 감동적인데요. 그러면 저작에 담겨진 내용을 좀 간추려 말씀해주실까요.
윤정원 :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저작에서 혁명에서 먼저 승리한 나라들은 자기의 경험과 모범, 자기의 정치, 경제, 군사적 힘으로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민중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반제투쟁을 벌여 승리한 다른 나라의 역량을 보위하면서 자기 나라의 혁명승리를 앞당길데 관해 천명을 하셨습니다.
주석님께서는 또 매개 나라의 객관적 혁명정세의 요구와 구체적 실정에 걸맞게 혁명의 시기와 투쟁형태, 그리고 투쟁방도를 선택할데 관한 문제도 밝히셨어요.
유진명 : 그뿐이 아니예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저작에서 3대륙 민중들이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해서 단합된 힘으로 반제투쟁을 벌이고 작은 나라들이 사대주의 사상을 버리고 반제투쟁에 적극 떨쳐나설데 관한 문제 등 매개 나라의 혁명과 반제공동투쟁에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셨어요. 경애하는 주석님의 저작은 반제자주를 위한 3대륙 민중들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었고 전반적 세계혁명운동을 새로운 앙양에로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전투적 기치였다고 합니다.
사회자 : 저작에서 천명된 위대한 반제혁명사상과 심오한 이론은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심장속에 억세게 자리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프리콘티넨탈≫잡지일군도 탄성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진명 : 그래서 잡지사 일군들은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분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모든 제목을 수록한 종합본 ≪반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도서를 최대의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1971년에 경애하는 그분께 선물로 올렸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치켜드시고 민족해방운동과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위인으로 우러르는 진보적 민중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래서 세계 진보적 민중들은 오늘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반제혁명위업의 탁월한 사상이론가, 실천가로 높이 칭송하며 끝없이 숭앙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각계 애국민중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같으신 절세위인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신 자긍심 가지고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투쟁에 과감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4일~5일